



신흥국 펀드 안에서 역대급 한국 비중

1. 신흥국 펀드 안에서 역대급 한국 비중

- 유가증권시장이 3,000pt를 넘어서면서,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10%를 넘어섬
- 신흥국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대만보다 높아짐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비중 축소

2. 신흥국 관련 주식 ETF, 자금 유입 이어짐

- 1월 첫주에 신흥국주식펀드는 소폭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신흥국 주식ETF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짐
- 아시아(일본제외) 주식 펀드와 ETF로도 자금 유입 지속
- 미국주식ETF 자금 유입

3. 달러 약세 구간에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 대체적으로 신흥국주식펀드(ETF포함)는 달러가 약세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자금 유입 본격화
- 2020년에는 달러 약세가 시작되고 시차를 두고 자금 유입 본격화
-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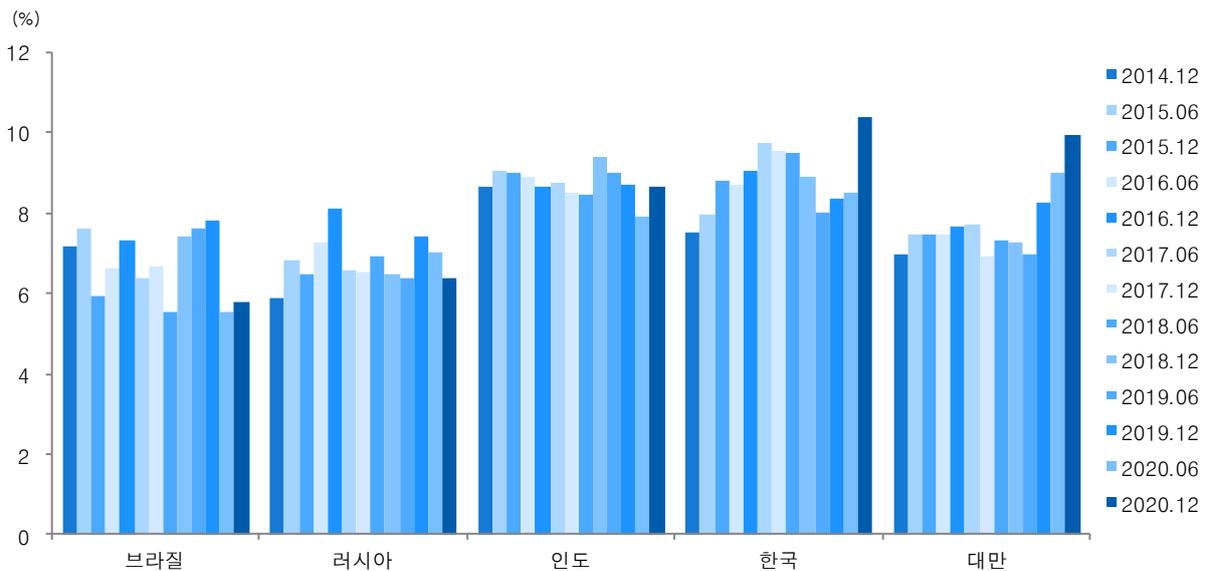
1. 신흥국 펀드 안에서 역대급 한국 비중

유가증권시장이 3,000pt를 넘어서면서,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10%를 넘어섰다. 전기차, 스마트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IT 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9월에는 한국과 대만의 비중은 8.5%와 9.0%로 대만의 비중이 0.47% 높았다. 하지만 12월에는 한국과 대만의 비중은 10.4%와 9.9%로 한국의 비중이 0.47% 높아졌다. 사실 2012년만 하더라도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중은 7.7%와 4.8%로 차이가 컸다. 대만의 비중은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보다 대만의 비중이 높아졌었다.

인도는 2018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9.4%까지 비중이 높아졌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은 29%를 넘어섰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비중이 27.6%로 줄어들었다.

[차트1]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10%를 넘어섬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0년 12월 집계종인 수치, 신흥국 펀드의 각 국가 비중을 단순평균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신흥국 관련 주식 ETF, 자금 유입 이어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금 유출이 이어졌던 신흥국 주식ETF는 4분기 들어서면서 유입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위험 자산이 선호되면서, 신흥국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1월 첫주에 신흥국주식펀드는 소폭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신흥국 주식ETF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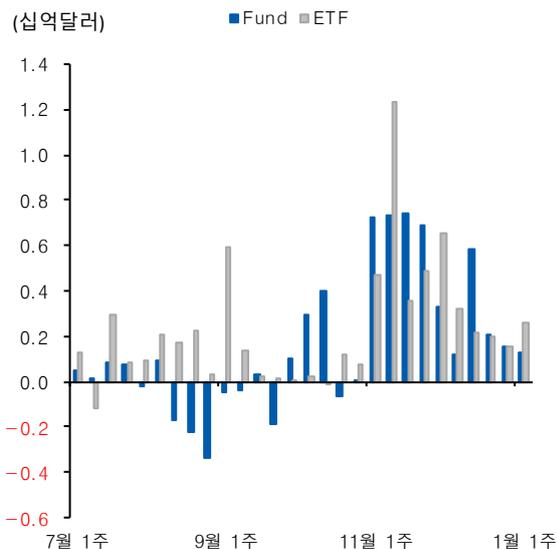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로도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12월보다는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자금 유출의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특히 아시아(일본제외)주식 ETF와 신흥국 주식 ETF는 12월 마지막주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1월 들어서면서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났다. 두 유형 모두 1월 자금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주식펀드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차익실현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주식 ETF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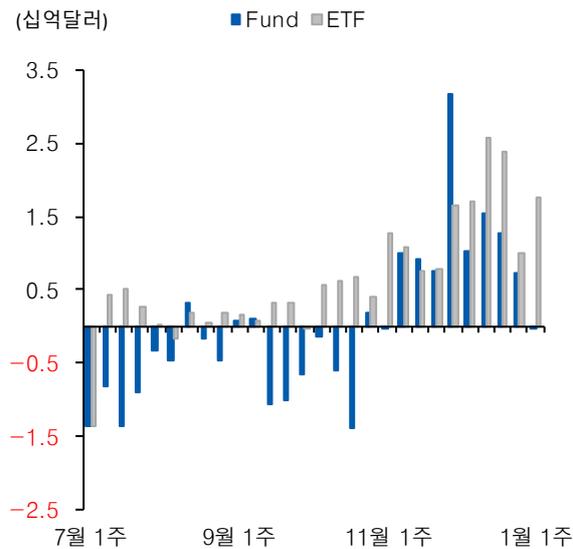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ETF가 투자심리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2]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입 지속



자료: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신흥국주식 ETF, 자금 유입 이어짐



자료: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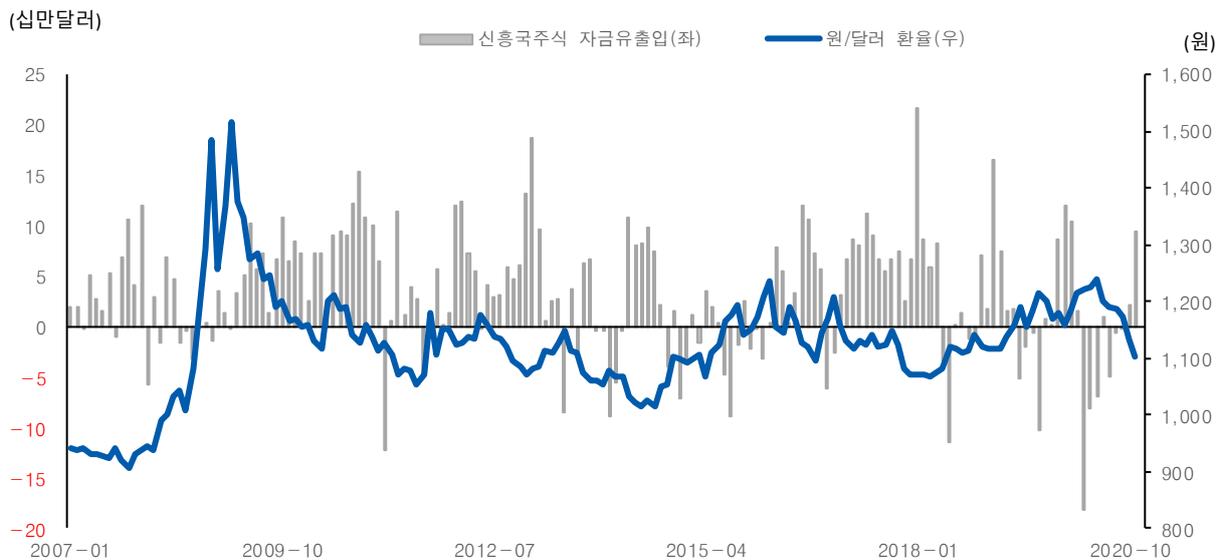
3. 달러 약세 구간에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대체적으로 신흥국주식펀드(ETF포함)는 달러가 약세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2012년, 2017년 모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신흥국 주식펀드(ETF포함)로 자금이 들어왔다. 자금 유입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유지되었다. 달러가 강세 구간에 접어들면, 신흥국주식펀드(ETF포함)으로의 자금 유입은 줄어들었으며, 2015년과 2019년이 그런 패턴을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신흥국주식펀드(ETF포함)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도, 신흥국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신흥국 주식펀드(ETF포함)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10월부터이며, 3달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자산을 부분적으로 이익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신흥국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3] 신흥국주식펀드(ETF 포함)는 달러 약세 기간에 자금 유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